

NEWSLETTER

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2024 #4

01 Highlight

제2차 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FAAF) 포럼
AFoCO 제 11차 총회
Interview: UNFCCC COP29 결과와 향후 전망

02 News Brief

AFoCO, 대한민국-프랑스와 함께 산불 관리 이니셔티브에 서명
AFoCO, 키르기스스탄 수자원 농업 가공산업부와 협정 체결
KT&G-AFoCO, 지속 가능한 산림 조성의 협력 기반 마련
IUFRO-AFoCO, 산림 및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협력 확대
골드스탠다드, AFoCO의 고품질 산림 프로젝트 지원 약속
SM 엔터테인먼트, 지속 가능한 공연을 위한 탄소발자국 캠페인 진행
티웨이항공, 키르기스스탄에서 1,000그루 나무 심기 행사 개최
UNFCCC COP29, 파리협정 6조 채택으로 국제 탄소 시장 확대 기반 마련
한국-UNFCCC,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 개발 협력 합의
세계은행, 탄소시장 보험 메커니즘 발표
녹색기후기금, REDD+ 결과기반보상 정책 채택을 통한 산림 보전 강화
영국, 산림국가에 2.39억 파운드 지원 약속
한-라오스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양해각서 체결
아세안 탄소 시장, 3조 달러 규모의 잠재력 보유
인도네시아, 온실가스 1.6억 톤을 초과 감축하며 국제 탄소시장 선도
필리핀, 파리협정 6조 기반 국제 탄소시장 로드맵 발표
기타 뉴스 요약

03 Review & Insight

2023년 산림 탄소 흡수량 감소: 주요 원인과 대응 전략
뉴욕산림선언 2024 평가 보고서
2024 상반기 자발적 탄소시장 주요 동향

04 Impact Story

05 Column

06 Upcoming Events



제2차 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FAAF) 포럼

10월 29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서울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제2차 아시아 포레스트 프렌즈(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FAAF)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열린 제1차 FAAF 포럼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림탄소사업에 대한 혁신적 자금 조달과 기후 적응 이니셔티브의 가속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행사에는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를 비롯해 정부와 기업 ESG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는 개회사에서 공공-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 복원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어서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2030 탄소중립 목표와 국내의 산림 복원 사업을 설명하며, 정부의 노력이 민간 기업의 ESG 목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강조하였다. 축사에는 Kerimaliev Zhanybek 키르기스스탄 농업부 차관, Delux Chhun 캄보디아 산림청 국제협력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등이 참여하여 산림기반 자연해법(NbS)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FAAF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어진 기조발제에서는 Juliette Biao UNFF 사무국장, Kwang Kim EoM Human Flourishing Foundation 이사장, Margaret Kim 골드스탠다드 CEO, 진선필 AFoCO 사무차장이 연사로 나서 산림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 투명한 탄소시장 구축, 혁신적 자금 조달, 상호 경호 경제 모델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박종호 AFoCO 사무총장이 정부, 기업, 커뮤니티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FAAF가 ▲ 아시아 기후 리더십 선도 ▲ 산림탄소사업을 통한 연간 메가톤 탄소 감축 ▲ 기업 ESG 활동과 국가 수요의 공유가치 창출을 전략적 방향으로 삼아 산림을 통한 기후 솔루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AFoCO 제 11차 총회

AFoCO는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사무국 본부에서 제1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는 키르기스스탄 농업부 차관과 UNFF 사무국장의 축사로 시작하며 AFoCO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했다.

총회에는 15개 AFoCO 당사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민간 부문 협력을 제안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현황을 공유하며 2025년 업무 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였다. 특히, 올해는 타지키스탄이 15번째 당사국이 되며 중앙아시아에서 AFoCO의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Interview

UNFCCC COP29 결과와 향후 전망

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탄소연구센터장



산림을 기반으로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만드는 기후변화·탄소 전문가다. 2009년부터 기후변화협상 정부대표단, UNFCCC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및 검토 전문가, IPCC EFDB 위원 등으로 국내외에서 활동 중이며, 최근에는 REDD+ 국외산림감축체계, 2035 NDC 등을 개발 중이다.

Q. COP29의 핵심 성과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의 핵심 성과는 신규 기후재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 설정과 국외감축체계(파리협정 제6조) 완성이다. NCQG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투자 확대(행동 촉진(Enabling Action), 의욕 증진(Enabling ambition))를 위한 재원으로 2035년까지 연간 1조 300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이중 연간 3,000억 달러는 선진국이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외감축체계는 파리협정이 채택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세부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협상이 완결된 것으로, 국가 간 감축실적 이전을 위한 절차, 규정 등이 최종 확정되며 소위 탄소

시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할 준비를 마쳤다. 우리나라는 NCQG는 조성에 있어 명시적인 기여 의무가 없으므로, 당장 우리의 NDC 달성에 필요한 국외감축체계 구축과 활용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Q. 국외감축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과 주목할 사항은?

가장 주목할 결정 사항은 6.4조 메커니즘(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 PACM)에서 활용될 방법론과 흡수·제거(removals) 활동에 관한 표준을 6.4조 감독기구가 채택하고, 이를 당사국총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방법론과 흡수·제거 활동 표준은 다양한 원칙과 요구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특히 누출(leakage)과 역전(reversals)에 대해서는 상호보완적으로 조치되도록 하였다. 방법론 표준에서 주목할 사항은 파리협정 제5조 제2항(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 Warsaw Framework for REDD+, WFR)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동 방법론 표준이 적용되는 PACM의 활동으로 명기(87항)한 것이다. 이에 따라 PACM에서 WFR 기반의 REDD+ 활동이 감축사업으로 추진될 것은 물론, 기존의 신규조림과 재조림 활동 외 다양한 흡수·제거 활동들이 향후 PACM의 감축활동으로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흡수·제거 표준에서 주목할 사항은 역전 처리 방안이다. 6.4 감독기구는 역전위험완충계정(Reversal Risk Buffer Pool Account)을 만들고, 역전 위험등급(백분율)에 따라 각 감축사업에서 발행되는 배출권(A6.4ER)의 일부를 완충계정으로 이전한다. 이는 감축사업의 사업성 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법론 표준에서 규정한 표준화된 기준선¹⁾(standardized baselines)과 흡수·제거 표준에서(준)국가 단위의 역전 위험등급 평가²⁾ 등을 도입한 것을 볼 때 PACM은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 기반의 REDD+ 사업과 같이 대규모 감축사업의 이행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산림 부문에서 국외감축체계에서 주목할 사항은?

파리 체제의 국외감축체계 중에서 가장 엄격한 6.4조 메커니즘이 방법론 표준에서 WFR 기반의 REDD+ 활동을 PACM의 감축활동으로 명기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외감축체계에서 REDD+ 감축사업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쟁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6.4조 메커니즘에서 WFR 기반의 REDD+ 감축사업은 단순히 준국가 단위 이상의 규모로 추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2010년에 채택된 결정문 1/CP.16의 제기항에 명시되어 있는 WFR 추진 시 요구되는 ① (REDD+) 국가전략 또는 행동계획 수립, ② 국가산림모니터링체계 구축, ③ 산림배출기준선/산림(흡수)기준선 기술평가 및 주기적 갱신, ④ 안전장치(safeguards) 보고체계 구축 및 주기적 보고가 모두 이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WFR은 UNFCCC 사무국이 직접 운영하는 독립적인 평가체계이고, 파리체제의 강화된 투명성 체계(BTR 제출, 전문가 검토 등)에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개도국 정부가 상기의 4가지 요구사항은 물론 REDD+ 활동의 이행 주체다. 즉, 정부 주도로 WFR에 참여하고 있는 개도국(73개국, 2025년 1월 1일 기준)만을 대상으로 PACM의 REDD+ 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6.2조 협력적 접근법은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 국가 간 감축실적의 이전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6.4조 메커니즘을 벤치마킹하여 REDD+ 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발적 탄소시장의 VERRA 등은 모두 개별적으로 자체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UNFCCC가 운영하는 WFR 기반의 평가체계를 따르기 어렵고, 자체 평가체계를 통해 WFR의 요구사항을 개도국 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지원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REDD+ 감축사업은 WFR에 참여하지 않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Q. 향후 국외감축체계 전망은?

현재 6.4조 메커니즘을 통해 추진 가능한 감축활동은 기존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의 14개 사업 분야와 활동만 등록되어 있으나, 새로운 활동을 추가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 파리협정 제5조 제2항의 REDD+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이산화탄소 흡수·제거(Carbon Dioxide Removal, CDR) 활동을 추가로 등록하는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추가 가능한 감축활동은 육상과 해양 생태계 기반의 탄소 흡수 및 공학 기반의 온실가스 제거와 관련된 다양한 CDR 활동이다. 특히 산림 분야는 산림경영, 식생 복구, 수확된 목제품(목조건축 등) 이용을 통한 탄소 저장 등 다양한 감축사업의 개발과 등록 추진이 필요하다. 새로운 감축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각 흡수·제거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흡수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고 보고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산정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



¹⁾ 표준 기준선: 준국가, 국가 또는 국가 그룹(group of Parties) 단위로 개발된 기준선

²⁾ 위험 평가 항목: 정치법적 위험, 테러·전쟁, 태풍, 홍수, 화재, 화산폭발, 지진 등

AFoCO, 대한민국-프랑스와 함께 산불 관리 이니셔티브에 서명

10월 30일, AFoCO는 대한민국 산림청 및 프랑스 유럽 외무부와 공동으로 아시아 산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Forest Fire Management in Asia (FFMA)' 이니셔티브에 서명했다. 본 이니셔티브는 ICT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 산불 관리 역량 강화, 지역사회 참여 및 생계 지원, 정책 강화 및 국제협력을 주요 목표로 하며, 특히 AFoCO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의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이 기후 변화와 인위적 요인에 의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력은 양 국가의 기술 통합과 정책 지원으로 산불 피해를 저감하고 지역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은 산불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FoCO, 키르기스스탄 수자원·농업·가공산업부와 협정 체결



12월 4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주최한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서 AFoCO와 키르기스스탄 수자원·농업·가공산업부가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체결식에는 박종호 AFoCO 사무총장과 키르기스스탄의 토로바예브 바키투 에르게세비치 장관이 공식 서명자로 참여했다. 양 기관은 혼농임업 및 원예 분야를 포함하여 총 4천만 달러 규모의 탄소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AFoCO 키르기스스탄 사무소 설립, 역량 강화 및 지식 공유, 산림 병해충 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협정을 기반으로 키르기스스탄 내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환경 개선에 있어 양 기관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T&G-AFoCO, 지속 가능한 산림 조성의 협력 기반 마련

12월 10일, AFoCO와 KT&G는 AFoCO 사무국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조성 협력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AFoCO는 KT&G와 함께 산림 보호 및 복원,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카자흐스탄 아바이주 산불피해지역 복구 및 재발방지 활동과 인도네시아

동자바 지역 맹그로브 숲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 확대와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모범 사례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및 산림을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FoCO는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모델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IUFRO-AFoCO, 산림 및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협력 확대



12월 16일, AFoCO와 국제산림연구기구(IUFRO)는 AFoCO 사무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기술 전문성 교류, 지식 공유, 역량 강화, 증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공동 연구, 출판 및 홍보 활동, 산림 및 기후 변화 대응 기술 협력,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자금 조달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골드스탠다드, AFoCO의 고품질 산림 프로젝트 지원 약속

11월 12일, UNFCCC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에서 Margaret Kim 골드스탠다드 CEO와 진선필 AFoCO 사무차장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기후 행동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아시아 지역 내 고품질 산림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AFoCO와 골드스탠다드는 AFoCO

회원국의 산림 프로젝트가 골드스탠다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 도움과 자원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실천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지 이해관계자가 탄소 금융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자료를 개발하는 역량 강화 활동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SM 엔터테인먼트, 지속 가능한 공연을 위한 탄소발자국 캠페인 진행



11월 16일, AFoCO와 SM 엔터테인먼트는 탄소 중립 공연 실현을 목표로, 2024 SMile Music Festival(SMF)에서 탄소발자국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AFoCO는 SMF 현장에서 관객들의 교통 수단과 거리를 파악하고 숙박 시설 및 쓰레기 등으로 인한 탄소 발생량을 계산했다. 이와 더불어 AFoCO의 '탄소 나무 계산기'를 홍보하여 행사 참가자들이 자신의 일상 속 탄소 배출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AFoCO와 SM 엔터테인먼트는 지속 가능한 문화 행사 운영과 탄소중립 공연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티웨이항공, 키르기스스탄에서 1,000그루 나무 심기 행사 개최

10월 20일, AFoCO와 티웨이항공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마나스 국제공항 인근에서 'Welcome to Forest'way'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김석완 티웨이항공 부사장, 진선필 AFoCO 사무차장 등 주요 인사들이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티웨이항공 임직원과 현지 관계자 등 약 50명이 1ha에 나무 1,000그루를 심었으며, 내년에는 추가로 1ha를 확장하여 총 2ha 부지에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UNFCCC COP29, 파리협정 6조 채택으로 국제 탄소시장확대 기반 마련³

11월 23일, UNFCCC COP29에서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 탄소 시장 운영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파리협정의 6.2조(협력적 접근법)와 6.4조(메커니즘)에 대한 세부 이행규칙 협상에 성공하며 탄소 배출권의 발행 및 거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했다. 이와 더불어 2035년까지 연간 3,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금

융을 달성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 협력을 통해 1.3조 달러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노르웨이는 파리협정 6조 적용 대상 프로그램에 7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개발도상국의 탄소 시장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³ <https://www.qcintel.com/carbon/article/analysis-un-agrees-greenhouse-gas-market-rules-paving-way-for-article-6-trade-32675.html>

한국-UNFCCC,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 개발 협력 합의⁴

12월 2일, 대한민국과 UNFCCC가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 GVCM)을 개발하기 위한 초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GVCM과 파리협정 6조를 조화롭게 운영하며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한국은 비정

부기구(NGO), 개발도상국, 국제 기후 기금과 협력 중이며 새로운 탄소 표준을 개발할 가능성도 논의됐다. 최종적으로 한국은 UNFCCC와 2025년 2월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세계은행, 탄소시장 보험 메커니즘 발표⁵

UNFCCC COP29에서 세계은행 산하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는 유엔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민간 투자자를 위한 승인서(LoA) 템플릿을 발표했다. 이 메커니즘은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성을 높여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목

표다. 주요 내용은 중복 집계 및 상응조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분쟁 해결 절차와 성과 미달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 방안이다. 글로벌 보험사들은 탄소 배출권 무효화 보험 등을 출시하며 탄소 보험은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녹색기후기금, REDD+ 결과기반보상 정책 채택⁶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은 제40차 이사회에서 REDD+의 결과기반보상 정책을 채택하며 개발도상국이 산림 보전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GCF는 지급 단가를 과거 톤당 5달러 대비 톤당 8달러로 60% 인상했

으며 이 정책은 성 평등 정책, 토착민 정책 등 GCF 기준을 준수한다. 이번 정책으로 기존 REDD+ 준비 프로그램(Readiness Programme)을 보완하여 REDD+ 준비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신속히 결과기반보상 자격을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⁴ <https://www.qcintel.com/carbon/article/s-korea-un-agree-to-develop-global-voluntary-carbon-market-32855.html>

⁵ <https://carbonherald.com/cop29-world-bank-announces-insurance-mechanism-for-carbon-markets/>

⁶ <https://www.greenclimate.fund/news/forests-get-boost-new-gcf-policy-redd-results-based-payments>

영국, 산림국가에 2.39억 파운드 지원 약속⁷

11월 24일, UNFCCC COP29에서 영국 정부는 2.39억 파운드(약 3,900억 원)를 콜롬비아와 인도네시아 등 산림이 풍부한 국가에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2026년까지 116억 파운드(약 19조 원) 탄소 금융 공약의 일환으로,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원금 중 약 2억 파운드는 SCALE 프로그램(Scaling Climate Action by Lowering Emissions)에 사용되어 산림 탄소 시장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에너지 장관은 “산림 보호 없이는 기후 안보가 불가능하다”며 기후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라오스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양해각서 체결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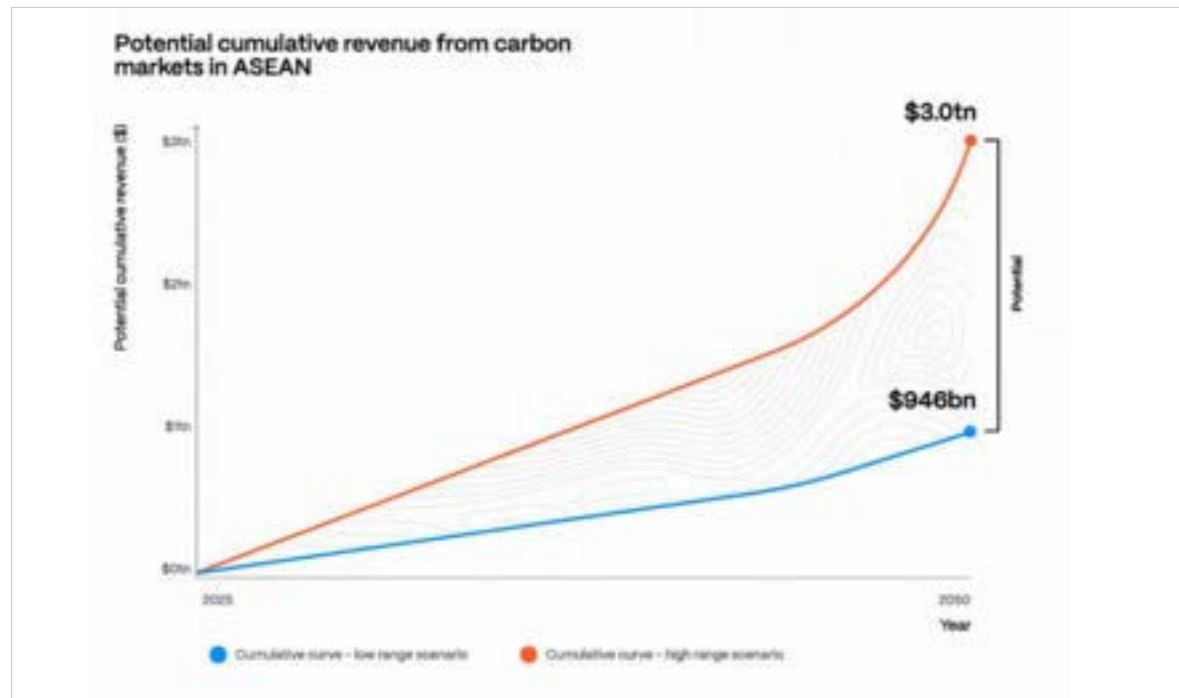
10월 10일, 라오스 국가주석궁에서 임상섭 산림청장과 린 캄 드영사완 라오스 농림부 장관이 한-라오스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부터 라오스 남부 동호사오 보호구역에서 진행된 시범사업과 지난해 라오스 북부 풍살리주 150만ha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제감축사업 추진 합의를 통하여 축적된 양국간 경험과 신뢰를 기반

으로 이루어졌다. 양국은 라오스 비엔티안에 REDD+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산림보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주민 역량강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섭 청장은 “양국 협력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규모 감축사업 확대 의지를 밝혔다.

⁷ <https://www.standard.co.uk/news/politics/ed-miliband-government-indonesia-colombia-baku-b1195620.html>

⁸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4393&pWise=main&pWiseMain=D2>

아세안 탄소 시장, 3조 달러 규모의 잠재력 보유⁹



아세안 탄소 시장의 잠재적 누적 수익

12월 4일, 탄소 사업 및 시장 분석 플랫폼인 Adaptable은 '아세안 탄소 시장에서의 기회(The opportunity for carbon markets in ASEAN)'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ASEAN)은 2050년까지 연간 11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3조 달러 규모의 탄소 시장

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EDD+는 270억 달러, 블루카본은 960억 달러 규모까지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성공적인 탄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맹그로브 복원, 조림과 같은 자연 기반해법(NbS)을 활용한 탄소 흡수를 제시했다.

⁹ <https://carboncredits.com/unlocking-aseans-3-trillion-carbon-market-potential/>

인도네시아, 온실가스 1.6억 톤을 초과 감축하며 국제 탄소시장 선도¹⁰

UNFCCC COP29에서 인도네시아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초과 감축하였음을 밝혔다. 특히, 2022년에는 산림 분야에서만 온실가스 1.6억 톤을 추가로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잉여 감축량은 파리협정 6조에 따라 다른 국가의 탄소배출권으로 이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잉여 감축량을 세계은행 산림탄소협력기구(FCPF)의 REDD+ 프로그램 사업에 우선 사용할 예정이다.

필리핀, 파리협정 6조 기반 국제 탄소시장 로드맵 발표¹¹

11월 13일, UNFCCC COP29에서 필리핀 정부는 파리협정 6조에 따른 탄소 시장 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필리핀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력해 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세계은행으로부터 100억 달러의 기후 금융 지원을 약속 받았다.

- **1단계(2024년 하반기):** 경제 모델링, 진단연구, 탄소 시장 청사진 개발 및 양자 협정 초안 작성
- **2단계(2025년 상반기):** 탄소 시장 청사진 완성 및 워크숍 · 이해관계자 협의 진행
- **3단계(2025년 하반기):** 정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범 프로젝트 시행 및 싱가포르와의 첫 양자 협정 체결

¹⁰ <https://www.qcintel.com/carbon/article/indonesia-amasses-huge-emission-surplus-for-carbon-projects-32913.html>

¹¹ <https://www.qcintel.com/carbon/article/cop29-philippines-government-releases-article-6-roadmap-31974.html>

기타 뉴스 요약

10월 14일, Forbes에 따르면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가 투자한 GEOTrees는 열대우림 국가들의 탄소 금융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드론, 위성 등으로 이산화탄소 흡수량 계산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10월 17일, Vietnamnet Global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업계는 2026년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감축 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3,750만 달러로 예상된다.¹³

10월 18일,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2026년부터 에너지, 철강 등의 분야에 탄소세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연구개발(R&D)에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¹⁴

10월 20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2024-2029년 임기를 이끌어갈, 일명 '적백 내각(Red and White Cabinet)'의 구성을 발표했다.¹⁵

10월 25일,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은 보고서 'The Forest Factor'를 발표하며 산림이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필수적임을 재조명하고 산림 관리 개선, 산림 보존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인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였다.¹⁶

10월 30일, Quantum에 따르면 부탄은 파리협정 6조 이행을 위한 4대 핵심 과제의 일환으로, 탄소 시장 정책 프레임워크의 초안을 관련 부처에 제출하였다.¹⁷

10월 30일, ICAO가 CORSIA 1단계로서 4개의 탄소 스탠다드(Gold Standard, Verra, Global Carbon Council, Climate Action Reserve)를 추가로 승인했다.¹⁸

11월 10일, UNFCCC COP29에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ASEAN) 국가의 탄소협회는 아세안 공동 탄소시장 프레임워크(ASEAN Common Carbon Framework) 구축을 위한 협력각서(MoC)에서 명했다.¹⁹

11월 18일, Quantum에 따르면 S&P Global은 파리협정 6.2조에 따른 탄소 배출권 인증 및 이전 등을 관리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²⁰

12월 11일, Symbiosis Coalition은 2035년까지 최소 50만 톤 이상의 탄소를 흡수하는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는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²¹

¹² <https://www.forbes.com/sites/kensilverstein/2024/10/14/bezos-backed-geotrees-will-earn-rainforest-nations-carbon-finance/>

¹³ <https://vietnamnet.vn/en/vietnam-s-airlines-face-hefty-carbon-credit-costs-amid-corsia-participation-2332510.html>

¹⁴ <https://www.qcintel.com/carbon/article/indonesia-amasses-huge-emission-surplus-for-carbon-projects-32913.html>

¹⁵ <https://setkab.go.id/en/president-prabowo-subianto-announces-red-and-white-cabinet-lineup/>

¹⁶ <https://forestsnews.cifor.org/90126/five-key-takeaways-from-uncbd-cop16-in-cali-colombia?fnl=>

¹⁷ <https://www.qcintel.com/carbon/article/bhutan-submits-draft-of-planned-carbon-markets-policy-framework-31308.html>

¹⁸ <https://carbonherald.com/icao-approves-four-programs-for-corsia-eligibility/>

¹⁹ <https://www.qcintel.com/carbon/article/asean-carbon-associations-to-cooperate-on-standards-30412.html>

²⁰ <https://www.qcintel.com/carbon/article/s-p-global-wins-tender-to-build-un-carbon-trade-registry-sources-32166.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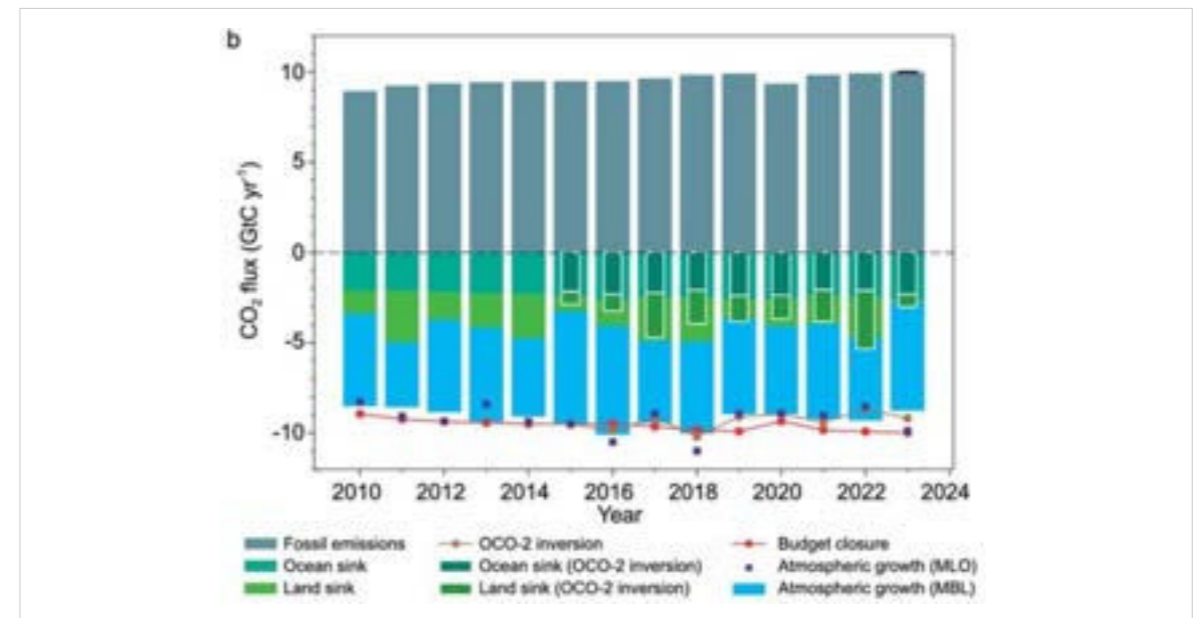
²¹ <https://www.symbiosiscoalition.org/perspectives/rfp-launch>

2023년 산림 탄소 흡수량 감소: 주요 원인과 대응 전략²²

최근 National Science Review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023년, 육상 탄소 흡수량이 0.44 ± 0.21 기가톤(GtC)으로 급감하며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년간 평균의 20%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감소는 아마존 가뭄, 캐나다 산불, 열대 및 북반구 생태계의 탄소 손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3년 전 세계 산림녹화 수준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탄소 흡수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화재 후 재생장 등 산림 증가와 탄소 흡수 간 연계가 악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탄소 흡수원의 약화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화석 연료 사용 최소화과 더불어 재조림,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기존 산림 보호와 같은 탄소 흡수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아마존 가뭄:** 2023년 6~11월 심각한 가뭄으로 0.31 ± 0.19 GtC 탄소 손실
- **캐나다 산불:** 18만 km² 이상의 산림 소실로 0.58 ± 0.10 GtC 배출
- **열대 지역 및 북반구 생태계 악화:** 엘니뇨로 열대 생태계가 순 탄소 손실로 전환됐으며, 북반구는 2015년 대비 흡수량이 절반 감소
- **기록적 폭염의 영향:** 전 세계 극단적 고온 지역에서만 1.73 GtC 탄소 손실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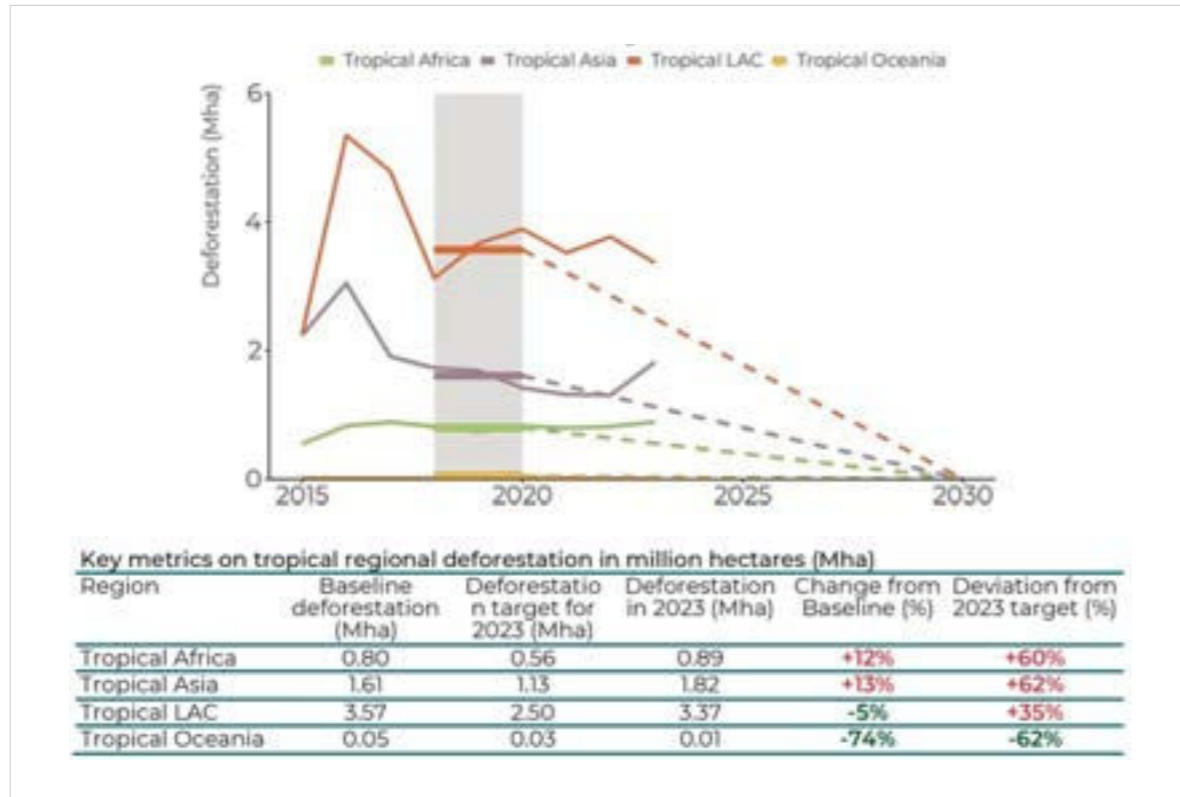


그림은 2023년의 CO₂ 예산을 화석 연료 및 시멘트 배출, 육상 및 해양 흡수원, 대기 CO₂ 증가율로 구분해 나타낸다. 육상 흡수원은 동적 식생 모델과 OCO-2 대기 역산 데

이터를 통해 추정되었으며, 화석 연료 배출량(-1 × Fossil Emissions)과 누적 막대 간 차이는 탄소 예산 불균형을 보여준다 (Ke et al., 2024)

²² <https://www.geographyrealm.com/land-carbon-storage-2023/>

뉴욕산림선언 2024 평가 보고서²³



지역별 열대림 손실

2023년의 전 세계 산림 손실은 심각한 수준으로,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산림 보호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을 초래했다. 전 세계적으로 637만 ha의 산림이 영구적으로 손실되었으며, 이는 열대 지역과 온대, 북극권 산림 모두 2030년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아마존과 열대 아시아는 산림 파괴와 생태계 퇴화를 심각하게 겪었고, 북미와 남미의 온대 지역에서도 높은 산림 손실이 보고되었다.

산림 황폐화는 2022년에만 6,260만 ha에 달해 산림 파괴 면적의 10배에 이르며 생태계 기능 약화와 산림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산불은 이러한 퇴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더욱 빈번하고 강력한 형태로 발생해 산림 복원과 탄소 흡수력을 저하시켰다.

농업 공급망에서의 산림 파괴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농업, 광업, 화석 연료 개발 등이 산림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산림 관련 책임 이행이 부족한 가운데, 유럽연합의 산림 관련 책임 이행이 부족한 가운데, 유럽연합의 산림 규제 (EUDR)와 같은 정책이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재조림,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산림권 강화, 지역 주민과 토착민의 주도적 참여를 포함한 포괄적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산림 보호와 복원은 단순한 환경 목표를 넘어 생태계 회복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

²³ <https://forestdeclaration.org/resources/forest-declaration-assessment-2024/>

2024 상반기 자발적 탄소시장 주요 동향²⁴

2024년 상반기 자발적 탄소시장은 다음의 주요 동향을 보였다.

- **발급량 안정화:** 2023년의 연간 발행량 감소 이후, 2024년 상반기에는 발행량이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새로운 빈티지의 크레딧 발행이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총 발행량은 20억 톤을 넘어섰다.
- **가격 하락 지속:** 거래소와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크레딧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구매자들은 여전히 고품질 프로젝트에 대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 **탄소 크레딧 사용량 유지:** 탄소 크레딧 사용량은 3년 연속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의 신중한 투자 분위기에 불구하고 탄소 크레딧에 대한 견고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 **콕스토브 사업 크레딧의 기록적인 사용량:** 콕스토브 사업을 통해 발행된 탄소 크레딧의 사용량이 2023년 상반기 대비 80%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자연 기반 탄소 흡수 사업의 발행량 증가:**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탄소 흡수 사업의 크레딧 발행량이 처음으로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회피/배출 사업의 발행량을 넘어섰다. 이는 탄소 흡수 사업의 증가와 특정 REDD+ 사업에 대한 관심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3-2024 상반기 자발적 탄소사업 부문별 크레딧 사용량 및 가격 비교

²⁴ <https://climatefocus.com/publications/voluntary-carbon-market-2024-h1-review/>

인도네시아 지역 영림단과 함께한 지역 맞춤형 산림 복원



이탄지 탄소축적량 평가를 위한 교육훈련(좌), 맹그로브 숲 머드크랩 양식장 조성(우)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고 산림은 인도네시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주요 탄소 흡수원이다. 그러나 산림 훼손과 이탄지(peatland) 화재 등으로 인한 토지 이용 변화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를 약 32% 감축하는 것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2년에 'Forest and Other Land Use (FOLU) Net Sink 2030'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AFoCO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SDGs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 혁신 방안'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이탄지(리아우주 캄파르 지역), 맹그로브 숲(서부 누사텡가라 섬바와 지역), 카르스트(남부 술라웨시 마로스 지역)의 세 가지 핵심 생태계를 대상으로 산림 복원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영림단(Forest Management Unit)과 주민들의 산림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총 42ha의 맞춤형 복원 모델(이탄지 10ha, 맹그로브 숲 18.5ha, 카르스트 13.5ha)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으며 해당 모델은 탄소 흡수량을 늘리고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모든 사업지에 생태관광 또는 비목재 임산물(Non-timber Forest Products)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 캄파르 지역의 이탄지는 지역주민간의 토지 소유권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농민그룹을 대상으로 혼농임업을 도입하고 임간축산(Agro-silvopasture) 및 양봉을 위한 교육훈련이 제공되었다. 다음으로 섬바와 지역의 맹그로브 숲 복원 모델에서는 두 개의 지역 농민 그룹과 협력하여 지역 최초로 머드크랩 양식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모델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생계를 개선하였고 지역 산림당국으로부터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맹그로브 숲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보여주는 학습센터로 운영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마로스 지역의 카르스트 복원 모델은 산불 피해지에 다목적 수종을 활용한 혼농임업기반의 복원 기법을 도입하였고 복원된 숲에는 관광 명소를 포함한 생태관광 마스터플랜이 개발되었다.

이와 더불어 본 사업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지역 영림단의 장기 지역 산림관리 계획을 인도네시아 정부의 FOLU Net Sink 2030 이니셔티브와 전략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최초의 기후적응형 지역 산림 관리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이다. 현장 실천 조직인 지역 영림단(Forest Management Unit)은 인도네시아 정부 산림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으로, 국가 정책 및 토지 이용계획을 지역 산림관리에 통합하고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리더십 결여, 제한된 권한, 인적·재정적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사례에서 지역 영림단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국가 산림정책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장기 지역 산림관리 계획(Rencana Pengelolaan Hutan Jangka Panjang)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 강화 활동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인도네시아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부합하며 환경 및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로서 지역 영림단을 포함한 지역 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사업의 이행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번 사업의 성과를 확대하여 지역 사회의 생계를 10% 이상 향상시키고 인도네시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역 목표를 10% 이상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르스트 소나무 숲 산불피해 복원지 관리

동백나무,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그 꽃 말이예요 ㄴ”



자생지에서 아름다운 우리 동백나무

겨울은 꽃이 드문 계절입니다. 그래서 더 꽃이 간절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 떠오르는 꽃나무가 바로 동백나무입니다. 꽃이 아름다우니 흔히 동백꽃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도 겨울이 담겨 동백(冬柏)입니다. 한창 나무 공부를 시작하던 시절, 동백나무는 겨울나무일까 봄의 나무일까 고민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름은 겨울꽃이라고 하지만 물에서 만난 동백들은 대부분 이르기 해도 분명 봄에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춘백(春柏)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백나무가 진정한 겨울꽃이라고 처음 절감하게 된 것은 거문도였습니다. 넘실대는 푸른 바다를 건너, 섬에서 만난 동백꽃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진초록빛 잎새 사이에 선연하고도 붉은 동백꽃잎들을 과하지 않게 벌려 그렇게 단아하게 피고 있었지요. 가슴 저 깊은 곳을 살짝 건드려 눈물이 찼끔 날 만큼 아름다웠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좀처럼 흰 눈을 볼 수 없는 남쪽섬, 불 불듯 피어 난 붉은 동백꽃잎에 바다 소금이 변하여 된 듯 흰 눈자락이라도 훑날리다 앉으면 동백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되

곤하지요. 그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겨울을 밀어내고 봄 기운을 끌어 올리며 동백꽃의 개화소식은 북상합니다. 섬으로 치면 서쪽으로 대청도, 동쪽으로 울릉도 해안을 따라서는 서산까지 올라오면서 동백꽃은 이 스산한 계절의 설레이는 주인공이 됩니다.

동백나무 집안을 영어 혹은 학명으로 카멜리아(Camellia)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는 17세기 경 체코슬로바키아의 선교사 케멜(Kamell) 세계를 여행하면서 아시아의 동백을 수집하여 유럽에 소개하였기에 그의 이름을 붙였답니다. 동백나무는 수분을 하는데 있어서 벌과 나비가 아닌 새의 힘을 빌리는 꽃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조매화(鳥媒花)로도 유명합니다. 동백꽃에서 꿀과 꽃가루를 얻는 이 새는 이름도 동박새입니다. 동박새는 작은 곤충도 잡아 먹지만 동백나무 꽃이 피면 꿀을 따고 열매를 맺으면 이를 먹고 사는 동백나무와는 뿔 수 없는 사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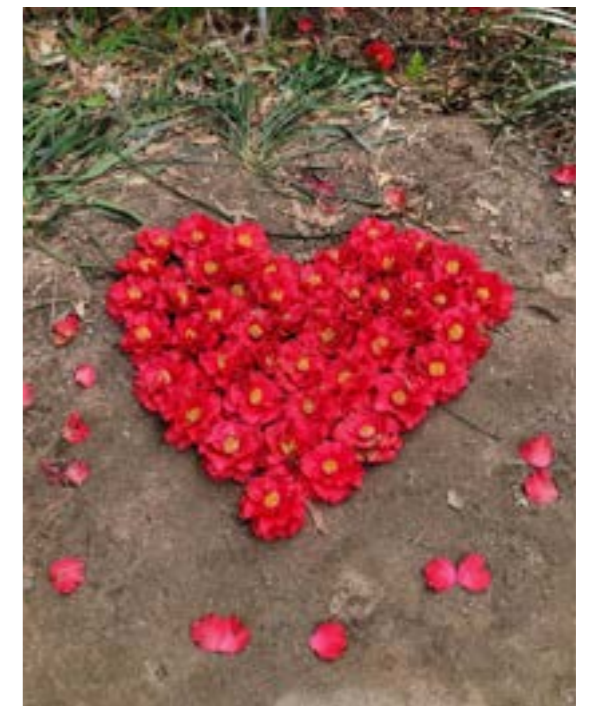
때론 동백꽃이 피고 눈발이 날리면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아름다운 풍광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꽃나무입니다. 형형 색색 개발된 품종이 수 백 가지에 이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꼭 건드리며 붙잡는 것은 사시 사철 윤기로 반질거리는 질푸른 잎새에 붉은 꽃잎 그리고 섯노란 수술이 만들어낸 조화로움이 아름다운 우리 동백나무입니다. 여기에 오래되어 회갈색으로 매끈거리는 그 윤치 있는 수피라도 어울리면 동백나무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세상에 선 보이지요. 간혹 추운 중부지방에서 동백나무가 아닌데 동백으로 불리우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는 중부지방에서는 산동백, 울동백 등으로 불립니다.

그 이유는 열매에서 기름을 짜다는 공통점 때문이지요. 동백기름이 예전에는 매우 향기롭고 유용하였는데, 동백나무가 겨울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곳에서는 생강나무 씨앗에서 기름을 짜기 때문입니다. 정선아리랑에 나오는 싸리골 울동백,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에 나오는 노란동백꽃도 생강나무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때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춘희(椿姬)란 이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여주인공이 일본에서는 “椿”이라는 한자가 동백나무란 꽃으로 사교계에 이 꽃을 들고 나오는 여주인공을 춘희 즉 동백나무가싸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한자가 참죽나무를 뜻하고 있으니 아직도 이 오페라를 그리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대청도를 비롯한 지구의 북쪽 한계를 나타내는 동백나무의 자생지와 백성들을 돕기위해 사찰주변에 심은 동백숲들은 여럿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자연유산일만큼 가치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구는 따뜻해지고 이 고귀한 나무들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위도는 점차 올라가겠지요. 씨앗에서는 더 이상 기름을 짜지 않는답니다. 꽃구경을 위해 좀 더 일찍 꽃을 피우는 애기동백을 이웃나라에서 심는 곳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겨울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백꽃, 하지만, 진짜 아름다움과 의미와 가치를 알기에는 아직 멀었다 싶습니다. 생각할 것도 많아지네요. 송창식이 지어 부른 ‘선운사’라는 노래에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그 꽃 말이예요,”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동백꽃은 질 때 꽃잎이 상하지 않고 꽃송이 채특하고 떨어집니다. 이것은 눈물같은 슬픔이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은 이 꽃송이들을 모아 하트를 만들어 사랑을 전하기도 합니다. 남쪽 겨울바닷가에서 그 붉은 꽃송이들이 툭툭 떨어져 지는 봄날까지 동백꽃의 선연한 아름다움에 한번쯤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 맞이하는 이 즈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진정한 소중한 존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싶습니다.



꽃잎이 상하지 않고 툭툭 떨어진 동백꽃은 눈물이기도 사랑이기도 하다.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포럼

(2025.1.20-24, 다보스 스위스)

2025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포럼이 2025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 기업 CEO,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 탄소 중립(Net Zero) 목표 달성, 혁신적 금융 메커니즘 도입, ESG 경영 전략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AVPN Southeast Asia Summit 2025

(2025.2.24-25, 싱가포르)

AVPN (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은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AVPN Southeast Asia Summit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한다. AVPN은 다양한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등이 모여 임팩트 투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이며, 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영향력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AVPN에서 주최하는 이번 회담은 '동남아시아의 목소리: 지역 변화와 포용 추진'을 주제로 하여 동남아시아의 혁신적 접근과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AFoCO는 AVPN Southeast Asia Summit에서 아시아 지역 내 산림탄소 및 산림 복원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참가 방법 안내

- **등록:** AVPN 공식 웹사이트 ([링크](#))에서 온라인 사전 등록 필수
 - **참가 대상:** 공공기관, 국제기구, ESG 리더, 임팩트 투자자, 지속 가능한 발전 전문가
 - **세부 프로그램:** 주요 발표 세션, 네트워킹 기회, 협력 파트너십 구축 워크숍
- *기존 AVPN 회원에게는 일정 인원 무료 등록 혜택 제공

세계 산림의 날

(2025.3.21)

매년 3월 21일은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가 2012년에 공식 제정한 '세계 산림의 날(International Day of Forests)'이다. 세계 산림의 날은 산림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산림 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였다. 2025년 세계 산림의 날은 '산림과 혁신: 기술과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기술 혁신과 산림 보호 및 복원에서 다자간 협력의 역할에 주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 기반 자연해법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AFoCO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AFoCO는 2025년 3월중으로 제2차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산림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주제와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동환 (Tel: 02.785.8995 / E-mail: minkyucha@afocosec.org)





NEWSLETTER

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12F. SIMPAC Building, 52, Gukjegeumyung-ro
Yeongdeungpo-gu, Seoul 07330,
Republic of Korea

www.afocosec.org
info@afocosec.org
+82 2 785 8971 (T)
+82 2 785 8970 (F)

